



우리는행 별별하모니아·다문화합창단 특별 협연

우리는행이 후원하는 ‘우리는행별별하모니아’와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문화다양성 확장을 위한 특별 공연을 선보였다. 우리는행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우리는행 별별하모니아’ 및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이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2026 교육공동체 문화다양성 2차 콘서트’에 참여해 협연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우리는행



대동, 전남생명과학고와 미래농업 인재 육성

대동이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미래농업 전문인력을 적극 육성한다. (왼쪽 3번째부터)대동 이광욱 농업AX추진TF 부문장,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김일식 교장 등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코웨이, 장난감 업사이클링으로 자원순환 실천

코웨이가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장난감을 소독·분해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을 펼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 ‘장난감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에 참여한 코웨이 임직원 봉사단이 기념촬영을 하며 웃고 있다. /코웨이



대웅제약, ‘손목닥터9988’ 서비스 발전 맞손

대웅제약이 일상 속 질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헬스케어를 확산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청서소문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와 ‘손목닥터9988 서비스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손목닥터 9988 서비스 발전 협약식’에서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왼쪽에서 4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웅제약

NH농협은행

여행 특화 ‘올원트래블’ 오픈

NH농협은행은 여행 준비에 필요한 콘텐츠와 금융 혜택을 NH올원뱅크에 모은 특화서비스 ‘올원트래블’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올원트래블은 국내외 해외 여행별 맞춤 금융 서비스와 최신 여행 콘텐츠를 통합해 제공한다. 고객들은 24종 통화의 환율 조회와 환전을 비롯해 ‘NH트래블리 통장·체크카드’와 연계한 외화 입출금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여행객에게는 미술관·유튜버 맛집과 테마별 여행지 추천, 나만의 여행 플랜 수립 기능을 제공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최태원 “한·멕시코, 미래산업·문화로 협력 확대”

〈대한상의 회장〉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환영사 한국 기술력·멕시코 제조력 결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의 기술·투자 역량과 멕시코의 제조 기반·인재를 결합해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에너지, 문화 분야로 넓혀자고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25일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환영사에서 “멕시코는 중남미의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시장 접근성이 뛰어난 중요한 경제 거점”이라며 “한국의 기술과 투자 역량, 멕시코의 탄탄한 제조 기반과 우수한 인재가 만나면 양국이 만들어갈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협력할 분야로는 첨단산업·공급망, 신산업·에너지, 문화·콘텐츠를 꼽았다. 그는 “첨단산업과 공급망에서 새로운 기회



를 만들고 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함께 성장하며 문화와 콘텐츠를 통해 서로의 시장을 더 가까이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 분야별 협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양국 경제인 간 신뢰의 중요성도 짚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서로를 알고, 신뢰하고, 오래 기억할 때 새로운 협력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과 멕시코가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멕시코 대외무역위원회(COMCE), 기업조정위원회(CCE)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 회장과 주요 기업·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멕시코 측에서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경제계 인사 150여명이 자리했다.

LGU+, 화담숲에 자생식물 식재

우리 고유 식물 34종 포함 120종 IoT 센서 활용해 토양 모니터링

LG유플러스가 국내 자생식물 보호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LG상록재단과 자연생태공원 화담숲에 약 120종의 식물을 식재한 생물종다양성정원을 조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운영하는 자연생태공원으로 2013년 경기도 광주에 문을 열었다. LG유플러스는 화담숲의 생태 보전 활동을 후원하고, 고객과 시민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경험

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한 생물종다양성정원(가칭)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자연 체험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식물 약 120여종, 1만 본을 식재했다.

특히 우리나라 고유 식물 34종이 포함됐다. 제비동자꽃과 흑산도비비추를 비롯해 금강초롱꽃, 섬백리향, 섬꼬리 풀, 울릉국화, 한라개승마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과 특산식물 등이다.

공원 조성 방식은 기존 화담숲 지형과 배경숲을 활용해 식재한 식물이 주



우리나라 고유 식물인 제비동자꽃. /LG유플러스

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했다. 특정 식물을 중심으로 전시하지 않고, 일반 관람객이 화담숲 관람 동선에서 우리 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정원에는 자사의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이 적용됐다. 무선 솔루션인 ‘지중 토양성분 모니터링’ 센서와 ‘시설 붕괴감지’ IoT 센서를 통해 토양의 수분과 산성도, 시설물의 진동과 기온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토양과 시설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원 유지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다.

앞으로 LG유플러스와 LG상록재단은 화담숲의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후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생물종 다양성정원이 시민에게 우리 식물의 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전국 맛축제 20개 ‘K-푸드’로 뭉친다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 내달 ‘K-푸드 페스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방정부와 협력해 오는 10~11월 기간 ‘K-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어 온 주요 식품축제 20개를 하나의 큰 덩이로 아우르는 미식축제다.

이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던 식품 행사를 단일 브랜드로 통합 홍보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다. 이를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축제 돌입에 앞서 9월 28~30일 외국인 관광객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 홍보 데스크를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이곳에서 홍보자료(리플릿)를 배포하는 등 방문객 맞이에 나선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심 조용철 대표가 2026 K-EXPO MEXICO 신라면 부스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농심

농심, 신라면 앞세워 중남미 공략

멕시코 한류 박람회 참가해 홍보 에스파 포토존·스탬프 투어 등 마련

농심이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지 한류 박람회에서 신라면을 앞세워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며 판매망 확대에 나섰다. K-콘텐츠 인기를 K-푸드 수요로 연결해 현지 시장에서 신라면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농심은 지난 24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 국제전시컨벤션센터(CIEC WTC)에서 열린 ‘2026K-EXPOMEXICO’에 참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B2C 전시와 공연, B2B 수출상담회 등을 아우르는 한류 박람회다. 국내 라면업체 가운데 농심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농심은 행사장에 신라면 부스를 마련하고 현지 소비자와 직접 만났다. 부스는 신라면 브랜드 세계관을 담은 ‘신버스(Shinverse)’를 콘셉트로 꾸몄으며, 멕시코에서 인기가 높은 K-POP을 활용해 브랜드 앰배서더 에스파(aespa) 포토존도 마련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신라면과 신라면 톱배를 현장에서 조리해 제공하고, 한정판 굿즈를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운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